

# 광주극장 옛 관사 무안 몽탄역



▶2012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된 광주극장 옛 관사.

▼1913년 문을 연 무안 몽탄역.



# esign을 입다

### 문광부 '디자인 프로젝트' 선정 ... 2억씩 지원 공간 리모델링·문화프로그램 운영

올해로 일흔 아홉살이 된 광주극장에는 재미 있는 공간이 있다. 극장 관사로 쓰이던 양옥집이다. 이 집은 극장 옆 작은 골목길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극장 2층에서 철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보면 꼭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들어서서 는 느낌이 든다. 양옥집은 2012년 비엔날레 당시 레지던시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광주극장 옛 관사와 무안 몽탄역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4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대상으로 광주극장 옛 관사의 '열린 문화 공간-영화의 집(메종 드 시네마)', 몽탄역의 '꿈꾸는 간이역으로의 초대' 등 전국 6개 사업을 선정했다.

12개 신청 사업 중 정선시와버스터미널 '10 리도 못가서 발병나네', 영동 황간 버스터미널 '시간이 머무는 자리', 추자도 어촌계 냉동창고 '바람이 머무는 섬 추자도', 충주 옛 여성회관 '소통형 문화플랫폼 프로젝트'도 함께 뽑혔다. 지원비는 국비와 지방비 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이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는 시설 개선 중심의 공공 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문화와 디자인을 결합,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으로 소규모 간이역, 유희공간, 시외버스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디자인 전문가와 문화기획자 컨설팅에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2011년 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13개 역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보성 특랑역과 역전길역이 각각 선정됐다.

현재 역무원 3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는 몽탄역은 1913년 문을 연 역사(驛舍)로 무궁화화가 상하행선 합쳐 매일 22차례 운영된다.

무안군은 327㎡ 규모의 대합실은 세월의 더께를 느낄 수 있는 옛날 느낌으로 리모델링한다. 몽탄역을 이용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채록해 이야기가 있는 방'으로 꾸밀 예정이다. 또 옛 광장은 공연장, 3000㎡ 규모의 화물차치장과 벽면 등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밖에 폐열차 한량을 구입, 미니공연장과 추억의 영화상영관, 열차 카페 등으로 활용한다. 영산강과 인접한 이점을 살리고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왕건 찾아 달리는 유적답사' 등 4개의 자전거길 코스를 개발하고 자전거도 대여할 계획이다.

무안군 전안수 과장은 "몽탄역을 지역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지역 문화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극장과 함께 기획한 '메종 드 시네마' 프로젝트는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자리잡은 광주극장의 오래된 사택을 활용한 기획이다.

1950년대부터 극장 경영진의 관사로 활용됐던 이 곳은 극장과 곧바로 연결된 공간으로 광주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배급 관계자나 영화인들이 묵어가던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1980년까지 사용되다 이후에는 귀금속 세공업자들에게 임대됐다.

2012년 광주비엔날레 때는 백시코 작가 아브라함 코르스비에바스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작품 '지동건축 작업실 비효율적인 땀질 방식의 워크숍'을 전시했다.

또 다른 참여작가였던 서도호씨는 역사가 담긴 사택 벽면의 탁본을 떠 비엔날레 전시장에 내 걸기도 했다. 광주중장축제 때는 7080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리모델링 공간은 120㎡ 규모의 사택과 마당, 진입로 등이다. 사택은 영화 상영, 전시, 교육 등이 가능한 영화 살롱과 미팅룸, 아카이브 자료실, 카페 등으로 꾸미며 옥상정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 공간은 휴식과 만남, 야외행사를 위한 마당을 조성하게 되며 극장 본관 파사도 정비한다.

광주디자인센터는 다음주에 광주시, 광주극장과 자리를 갖고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B 바흐 베토벤 브람스 만나다

## 호남예술제 출신 김연씨 유·스퀘어서 오늘 독주회



김연 피아노 독주회가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The Great 3B'. 역사상 위대한 작곡가로 꼽히는 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대표곡을 만난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의 '파르티타 2번 C단조', 베토벤의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브람스 '소나타 1번 C단조'다.

호남예술제 등에서 입상한 김씨는 광주예고, 전남대 음악학과를 거쳐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와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이탈리아 오바다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등 여러 콩쿠르에서 수상했으며 2010년 귀국 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CN피아노, 연주회 멤버로 활동중이며 전남대, 순천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천주교 태동' 골롬반선교회 아시나요

1934년 목포서 첫 선교 80주년 기념 사진전 등 개최  
선교회 오기백 지부장 "강정마을 위한 국제연대 추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외교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광주에 남아 민주 투사들과 함께 했다.

1976년 한국에 온 아일랜드 출신 오기백 지부장 신부도 전남에서 첫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주임신부를 모시고 흑산도에서 선교활동을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이하 골롬반선교회)를 아시나요.

골롬반선교회는 광주·전남 지역 천주교 역사를 태동시킨 가톨릭 선교 단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뿌리도 골롬반선교회가 다졌다. 가장 친숙한 신부로는 엠마우스 복지관을 만든 천노엘(83) 신부가 있다.

골롬반선교회가 1934년 목포에 첫 발을 디디고 한국 선교에 나선지 8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명동성당에서 80주년 개회미사를 시작한 골롬반선교회는 오는 27일 한국 선교 역사에 시작된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마지막 행사미사와 사진전을 연다.

행사미사를 앞두고 21일 광주를 찾은 골롬반선교회 한국지부장 오기백(64·사진) 신부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골롬반선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특징들을 찾아 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고민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골롬반선교회 소속 신부 11명은 1933년 10월29일 부산항을 통해 한국땅을 밟았고, 이듬해인 1934년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지역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6·25 전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물결 속에서 빈민과 노동자, 민주 투사들과 함께 해왔다.

제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골롬반선교회 신부 3명은 독립유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

을 시작한 그는 "당시 한국에 일정기간 머물며 학원에 다녔는데도 언어, 문화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저보다 40년 이상 앞서 한국에 온 선배 신부들의 어려움은 이보다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백 지부장 신부는 "진요한 신부는 전남에 중학교, 조선소 등을 세웠고, 골롬반 수녀들은 목포에 골롬반병원을 세우기도 했다"며 "구결하는 주교'로 불린 현 하롤드 헨리 대주교(광주대교구 5대 교주장)가 1962년 광주 가톨릭 대학교(쌍촌동)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부터 인천교구 소속으로 부천에서 사목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전남 지역 15~17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매일 밤을 세웠던 기억은 그가 한국에서 선교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오기백 신부는 "앞으로도 모든 것을 보고,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골롬반선교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국제 사회와 함께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위한 연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해바라기' 박유자의 '대나무 바라기'

## '바람의 기억' 전 30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대나무 숲의 바람의 기억'

해바라기를 통해 희망과 사랑을 표현해온 서양화가 박유자씨가 대숲에 부는 바람을 만났다.

박씨가 오는 30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바람의 기억'을 주제로 열네번째 개인전을 연다.

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관화기법으로 대나무, 숲 등을 표현한 '대나무 숲의 바람의 기억' 시리즈와 해바라기 연작인 '사랑합니다' 시리즈 등 모두 26점을 선보인다.

한여름 열정을 받쳐 태양을 쫓던 해바라기에 폭 빠져지냈던 작가는 작업실을 담양 죽녹원 인근으로 옮기면서 대나무에 매료됐다.

그녀는 거기에서 대숲의 바람을 만났고, 그 바람 속에서도 사시사철 푸름을 간직하며 끈게 자신을 지켜내는 대나무를 보았다.

"작품을 통해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대나무의 성질은 선비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지조로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 봄 노란꽃을 피워 바람에

날려보냈던 산수유를 담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박씨는 150여 차례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환경미술협회, 예쁜그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제30회 대륜상 후보자 모집

## 한국여학사협회 광주지부

(사)한국여학사협회 광주지부(회장 김경란)는 오는 29일까지 '제30회 대륜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1977년 제정된 대륜상은 여성의 기본권을 수호한 자료, 한 여성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한 남성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상이다.

대상은 아내를 도와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사회의 귀감이 된 남성이나, 아내의 사회활동을 뒷바라지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한 남성이다.

후보자의 공적조서 2부와 각 단체장이나 사회단체 또는 기관장 추천서 2부를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5월16일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문의 062-363-94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북고당 한약방

농성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